

“안내표지판 있으나 마나” 시민·관광객 불편

낡거나 엉터리 정보 수도룩…광주 이미지 실추
금남로5가 교차로 오기 사고 우려…“일괄 정비”

광주 지역 곳곳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이 낡거나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드러낸 채 방치돼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 관광 안내부터 도로 표지까지 관리 부실이 지속되면서 광주의 첫인상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하루 수천 명이 오가는 이곳은 단순 버스 승·하차 시설의 기능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 이마트광주점, 음식점·카페 등이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만남의 장소로 불린다. 택시 승강장 인근에 관광안내를 위한 표지판 2개가 설치돼 있었지만, 네 용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광주공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시내버스 노선 안내는 실제 운행 노선의 절반에

도 미치지 못했고, 일곡38번 버스는 송정역을 경유하지 않는데도 운행하는 것처럼 잘못 표기돼 있었다.

광주·전남 병소, 관광안내소, 교통 이용 안내 등을 알려주는 광주문화관광포털과 남도여행길잡이로 연결되는 QR코드는 ‘주소를 찾을 수 없다’는 안내만 띄웠다.

인근에 설치된 영산강 8경 안내 표지판 역시 빛이 바랜 채 방치돼 있었고, ‘영산강 이용도우미’와 ‘영산강 자전거길’ QR코드는 작동하지 않았다.

한 관광객은 “터미널은 도시의 첫 방문인데, 관광안내도가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광주의 얼굴이 무관심 속에 방치된 느낌이다”고 하소연했다.

도로 안내표지판도 사정은 다르지 않



광주 지역 곳곳에 설치된 교통·관광 안내표지판이 낡거나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드러낸 채 방치돼 시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 사진은 동구 금남로5가 사거리 좌회전 통행(동부소방서, 대인시장 방향)이 가능하지만 통행금지 표지판(왼쪽)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광장에 설치된 영산강 8경 안내표지판.

았다. 하루 평균 3만~4만대 차량이 오가는 동구 금남로5가 사거리 왕복 5차선 도로 위에는 운전자의 길 안내를 위한 도로표지판 2개가 설치돼 있다.

표지판(금남로5가역에서 5·18민주광장 방향)에는 현 위치를 기준으로 직진 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5·18민주광장, 우회전 시 빛고를리시민문화관, 좌



회전 시 동부소방서, 대인시장이 나온다

는 안내 글자가 표기돼 있다. 하지만 도로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서로 달라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노면에는 동부소방서·대인시장 방향 좌회전 화살표가 표시돼 있는 반면, 상단 도로 표지판에는 좌회전 금지가 적혀 있다.

북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인근 사거리도 마찬가지다.

도로안내표지판(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임동오거리 방향)에는 직진 시 버스터미널, 우회전 시 광주역이 안내됐지만, 좌회전 시 해당 구간을 안내하는 문구가 없는 채 방치돼 있었다.

운전자 김모씨(30)는 “신호 체계와 노면은 바뀌었는데 표지판만 그대로다”며 “출퇴근길마다 헛갈려 급정거하는 차량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내표지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기본 인프라다”며 “관광도시를 만들기 전에 기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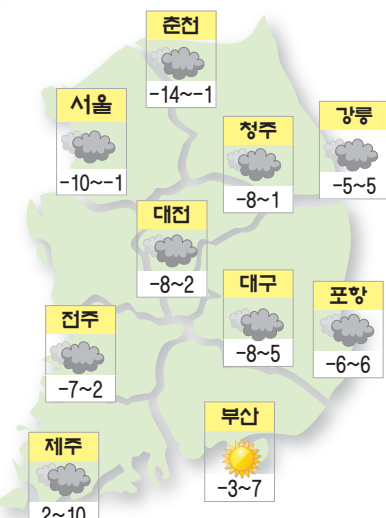
이같은 불만 목소리가 제기되고 나서야 행정당국은 뒤늦게 정비 방침을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관광·도로 안내표지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산강 관련 표지판을 설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영성유역본부도 “설치 경위를 확인한 뒤 철거 또는 보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7:36	달달	17:54
☁️	예보	11:26	달달	00:35



	광주		-5~3
	목포		-4~2
	여수		-4~6
	순천		-8~4
	구례		-7~5
	광주		-5~4
	임도		-3~4
	흑산도		1~4
	진남		-7~6
	진도		-2~3

목포	밀물(고)	07:14 / 19:20
	썰물(저)	12:20 / ---
여수	밀물(고)	01:53 / 13:53
	썰물(저)	07:46 / 20:22

광산구 천원 프로젝트, 가성비 정책 ‘호응’ 식당·반찬·파크골프 등 12가지 정책 긍정적 반응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12개 가성비 정책인 ‘천원 다가치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천원 다가치 프로젝트는 천원페이백, 천원거리, 천원한끼, 천원반찬, 천원택시, 천원병원동행, 천원주차장, 천원수거보상제, 천원기부, 천원문화마실 등 12가지 정책으로 구성됐다.

천원한끼를 제공하는 천원식당은 지난해 8만5000명이 이용하며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이곳에서 판매하는 천원반찬은 하루 200개의 물량이 매진될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주는 천원페이백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은 천원거리 정책도 빛을 발했다.

천원문화마실은 판소리극, 콘서트, 무용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8편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천원주차장 성과도 두드러졌다. 정책 시행 전 월평균 3만9000대였던 이용 차량 수가 4만5000대로 늘어나며,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민원 건수도 줄었다.

광산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김이를 더한 ‘천원정책 2.0’을 선보인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천원병원동행’ 서비스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 차량을 추가로 도입하고, 전문 동행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천원택시’ 또한 택시 이용권 1매당 지원되는 보조금을 기존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확대해 기본 요금 인상에도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천원정책에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민생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보여줬다”며 “올해는 전국적으로 민생 모델이 된 천원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



‘은빛 송어를 잡아라!’ 휴일을 맞아 25일 무안 해제면 양간다리 수산시장일원에서 열린 2026 무안 겨울 송어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맨손으로 은빛송어 잡기 체험을 하고 있다. ‘송어튀김 희망날고’를 주제로 열린 2026 무안 겨울 송어 축제는 겨울 제철 수산물인 송어를 주제로 체험과 먹거리,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결합한 축제를 선보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 화재 발생 늘고 구조·구급 활동 감소

지난해 소방활동 분석…화재 5.4% ↑·구급출동 9.7% ↓
이송 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다수…전체 47.1% 차지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화재 발생은 늘어난 반면 소방 구조활동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소방안전본부가 지난 한해 광주지역 소방활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구조와 생활안전, 구급건수가 각각 9.0%, 9.1%, 6.8% 감소했고, 화재는 5.4%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광주소방이 구조 출동한 건수는 7960건으로 전년 대비 9.7% (857건) 감소했다. 구조건수는 6239건으로 9.0% (618건) 줄었고, 유형별로는 화재 1307건, 승강기 1243건, 위치확인 1075건 순이었다. 구조 출동과 건수가 줄면서 구조

인원도 3576명으로 전년 대비 9.6% (380명) 감소했다. 전년 대비 출동건수·구조건수·구조인원이 모두 감소했으나, 수난·붕괴·폭발 등 고위험 구조유형이 증가했고, 특정 시기·시간·지역에 구조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구급 출동은 전년 대비 4.3% (3125건) 줄어든 6만9931건으로 하루 평균 191.6건이었다. 한해 동안 구급 출동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4만3738명으로 일평균 119.8명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 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만599명으로 47.1%를 차지했다. 10세 미만

소아 환자는 전년 대비 20% 감소해 1206명이었으며, 전체 이송 환자 중 2.8%였다. 환자유형별로는 질병에 의해 이송된 환자가 67.3% (2만9430명)로 가장 많았으며, 추락·낙상 등 사고부상 21.1% (9226명), 교통사고 5.5% (3610명)로 뒤를 이었다.

화재는 한해 동안 725건 발생해 전년 대비 5.4% (37건)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72명 (사망 8명, 부상 64명)으로 41.2% (21명) 늘었고 재산피해는 1232억원으로 전년 61억원보다 무려 1916% (1171억여원) 급증했다.

김희철 광주소방안전본부 119대응과장은 “소방활동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안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앞장서는 광주소방이 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추억의 충장축제’ 10월 7~11일 열린다

동구, 구제길 위원장 선출·축제 준비 본격화

제23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금남로·충장로·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25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청사 3층 상왕실에서 2026년 제1차 추억의 충장축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축제 개최 일정과 축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결과 및 종강동 위촉사 항 보고, 제23회 충장축제 개최 시기 결정, 중·장기 발전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회의 결과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충장축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충장축제를 ‘추억의 노래’를 주제로 10

월 7~11일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신규 킬러 대표 콘텐츠 발굴, 축제장 공간 재구성, 퍼레이드 주제 및 연출 고도화 등 축제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택 구정장은 “위원회를 통해 개최 일자를 확정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세계속 제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충장축제를 글로벌 명품축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북구청사 신관 건립 마무리

오늘부터 업무 개시…주민 편의 향상 기대

건물 노후와 부서 분산 등으로 불편을 초래했던 광주 북구청사가 신관 건립으로 한층 쾌적해진다.

25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26일부터 5개 국 17부서가 신관에서 순차적으로 업무에 들어간다.

신관 건립은 행정 수요 대비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고 본관과 여러 별관 등으로 분리된 청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동안 북구 본청 소속 부서들은 본관과 별관, 효축1공영주차장, 4곳의 별도 건물 등 총 7개 업무공간으로 분산돼 있었다.

신관이 완공됨에 따라 신관, 본관, 효축1 공영주차장 등 3곳으로 청사가 압축되며 비효율적인 청사 동선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방문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관은 예산 300억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7179㎡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구내식당과 카페 등 편의 공간이 들어서고, 2층부터 7층까지는 5개국 17개 부서의 기록관, 재난안전상황실, 우



수·산불모니터링실, 다목적회의실 등으로 채워진다. 8층에는 발전기실과 전기실이 위치한다.

북구는 26일 건축과 등 6개 부서, 다음달 2일 문화예술과 등 3개 부서, 다음달 9일 민생경제과 등 8개 부서가 차례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북구청사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신관 건립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근무 환경이 개선된 만큼 청사를 찾는 주민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곡성 산불 13시간만에 완진

마지막 확인 완료
곡성군 오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13시간 만에 꺼져.

2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58분 곡성군 오산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며 1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2시5분 완진돼.

소방당국은 불길이 확산됨에 따라 22일 오후 9시 4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69대, 인원 384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여.

안전사고 우려로 일시적으로 화재 진압을 중단했다가 날이 밝으면서 재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주택 2동과 산림은 5ha가 소실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하고, 산불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 등을 조사 중이라고. 송태영 기자 sty1235@ 곡성=김유민 기자 hnnews1@

남구, AI·모빌리티 행정 강화 행정수요 능동 대응 조직개편

광주 남구가 국정과제 전략적 대응과 구정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데이터 기반, 미래 모빌리티 행정에 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892명에서 902명으로 10명(일반직) 늘어난게 핵심이다.

현행 경제재정국5과(민생경제과·회계과·일자리정책과·세무1과·세무2과) 체제를 6과(민생경제과, 회계과, 일자리정책과, 미래산업전략과, 세무1과, 세무2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 26명을 유지한다.

직급별로는 5급 1명(63명→64명), 6급 이하 9명(840명→849명)이 증원된다.

10명(5급 1명·6급 2명·7급 2명·8급 5명) 증원이 확정되면 이에 필요한 연간 인건비 7억1324만원은 자체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